



보도용 발표 No. 09/372

긴급발표용

2009년 10월 29일

국제통화기금

Washington, D.C. 20431 USA

## IMF, 아시아 지역은 경기가 급속히 회복되나 “새로운 세계”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국제통화기금(IMF)은 아시아 지역에 관한 금일의 보고서에서 아시아 지역은 세계 경제 위기의 늪에서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금일 서울에서 발표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지역경제 전망(REO)에 따르면 아시아의 성장률은 2009년의 2¼ 퍼센트에서 2010년에는 5¼ 퍼센트로 가속화될 것이라고 내다보았으며 이 수치들은 이전의 예상치 보다 높아진 것이다.

이 보고서는 “아시아 지역의 경기 회복을 이끄는 주요인은 2008년에 있었던 국제 무역과 재정의 갑작스런 붕괴 이후 정상화를 향한 점진적인 복구의 결과이다”라고 말하고 “국제 무역과 재정이 동결됨으로 인하여 미국의 경기 침체가 아시아 지역의 과다 침체를 야기했던 것처럼 현재의 미국의 정상화는 아시아 지역에서 회복 국면에서도 확대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다. REO는 이러한 변화는 아시아 지역이 세계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실제로 아시아 지역의 재정은 세계 경제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 보고서는 아시아 지역의 경기회복을 이끄는 또 다른 요소는 이 지역 국가들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정책적 반응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반응은 이 지역 국가들이 과거보다 더 건전한 재정, 더 신뢰도 있는 통화 정책, 및 기업과 은행들의 더 튼실한 재무 구조를 갖고 있다는 기본적인 건실한 조건들 때문에 가능하다. 이러한 조건들은 정책 입안자들로 하여금 국내의 전반적인 수요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금리를 크게 인하하고 확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을 제공해 주었다

그렇다면 이 지역의 미래는? REO는 세계의 경제 조건들은 2010년에는 점진적인 개선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IMF의 최근 예측 결과에 따르면 G7 국가들의 민간부문 수요는 위기 의식으로 인한 위축 현상이 남아 있게 될 것이므로 내년 이 국가들의 생산량은 1¼ 퍼센트 정도만 상승하여 2009년 동안에 예상되는 경기위축의 절반 정도만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시아 지역 국가들 제품에 대한 해외수요도 침체 국면이 지속되어 이 지역의 성장률은 지난 십년간의 평균치인 6 2/3 퍼센트보다 훨씬 낮을 것이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정책 입안자들은 두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서는 말하고 있다. 즉, 단기적으로는 잘 조성된 균형 정책을 실시하여 경제가 충분히 건전성을 되찾고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이러한 지원 정책들이 인플레이션을 유도하거나 회계 년도의 자생력에 대한 우려를 낳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정책 입안자들은 중기적으로는 G7 국가들의 수요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새로운 국제 환경 속에서 자립적이며 신속한 회복을 달성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세계” 속에서의 아시아의 장기적인 성장 전망은 국내 기반들이 좀 더 역동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성장 요인들을 재조정하는 능력에 의해 결정될 수도 있다.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경제 전반에 걸쳐 자원이 원활하게 재분배될 수 있도록 더욱 신축성 있는 환율 정책과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할 것이다.

REO는 수록된 두 개의 분석적 장(章) 중 처음 장에서 현재의 세계 경제의 회복을 위해 배워야 할 점들을 찾기 위해 일본이 1990년대에 금융 위기에서 어떻게 탈출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일본은 어떻게 금융 위기를 극복하였는가: 현재 상황에서 배워야 할 점들*”이라는 제목에서 이 장은 일본의 경우 우호적인 외부환경의 영향들이 민간 부문의 수요를 진작시키고 위기의 핵심이 되었던 재정 및 사기업 부문의 문제점들이 적절히 해결되어서야 지속 가능한 회복이 정착화 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일본의 경험은 “회복 징후”가 존재한다고 해서 회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현재의 전망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선진경제에서는 재정적인 취약점들을 보완하는 것이 지속적인 회복을 달성하는데 필수적임을 말해준다.

제 III 장, “*아시아 지역에서의 기업 유보금 및 재무 재균형화*”에서는 과거 수년간 아시아 지역에서 투자가 위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유보금이 크게 증가한

사실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특이한 현상은 왜 기업체들은 적절한 투자 프로젝트가 없으면서도 이익을 배당금으로 지불하지 않았나 하는 하나의 의문점을 제시한다. 이 장에서는 이 의문점의 해결을 위해서는 구조 개혁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결론짓고 있다. 기업의 재정적인 발전이 증가하면 예방적 사유에 의한 이익 유보의 필요성은 감소되는 반면 기업의 지배력이 향상되면 관리자들이 수익성 있는 프로젝트에만 이익을 유보할 수 있게 보장할 수가 있다.